

투수 라이브 피칭 돌입... 좌완 김기훈·윤영철 선발 경쟁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호랑이 군단’의 주전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라이브 피칭에 돌입하면서 생존경쟁에 나섰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외국인 ‘강속구 듀오’, 좌완 김기훈과 윤영철 두 좌완 선발 후보가 나란히 캠프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손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는 메인구장에서 타자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앤더슨은 이날 직구,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30구를 던졌다. 메디나도 30개 공을 뿌리면서 직구,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소화했다.
앤더슨의 제구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타자들은 두 투수의 구위 등에 좋은 점수를 줬다.
보조구장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KIA 마운드 구성의 키를 쥐고 있는 김기훈과 함께 ‘루키’ 윤영철이 토종 투수 중 가장 먼저 라이브 스타트를 끊었다. 김중국 감독은 김기훈, 윤영철 그리고 임기영을 5선발 후보로 두고 지켜보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15구씩 나눠 2차례 피칭을 하며 30구를 소화했다.
빠른 페이스로 라이브 훈련이 전개되면서 라인업

앤더슨·메디나 타자들 앞에 첫 선
김기훈 “체인지업·커브에 더 노력”
윤영철 “아직 부족 준비 잘 하겠다”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기훈은 “예상보다 빠르게 라이브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마운드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던졌다. 메커니즘, 루틴을 하나하나 지켰다”며 “직구는 생각했던 대로 괜찮게 잘 던졌던 것 같고, 체인지업이나 커브는 더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지려면 좀더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첫 라이브 피칭을 평가했다.
윤영철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긴장됐는데 적응이 편해져서 재미있게 던졌다.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데,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염두에 뒀다”며 “직구는 대체로 괜찮았는데 변화구가 좀 빠졌고, 원하는 곳에 안 들어가면 몇 개 있어서 더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프로에서의 첫 라이브, 윤영철은 ‘집중력’으로 긴장감을 풀었다.
김기훈은 윤영철을 보면서 자신의 신인 시절을 떠올렸다. 김기훈은 “영철이도 TV로만 봤었던 선배들을 상대로 라이브하는 것이니까 많이 긴장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첫 라이브 때 인생 피칭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좋았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으니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며 “천천히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차근차근 몸을 잘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임)기영이 형이랑 영철이랑 세 명에서 좋은



KIA 타이거즈 좌완투수 김기훈(왼쪽)과 윤영철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 스프링캠프에서 라이브 피칭을 끝내고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으로 잘 경쟁하고 있다. 나도 뒤쳐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발 경쟁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윤영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천천히 몸 만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더 하겠다”며 “행들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다. 선의의 경쟁하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서 좋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골 없어 답답한 SON

토트넘, 레스터시티에 1-4 완패
손흥민 풀타임 공격 포인트 없어

손흥민(31)이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득점포 침묵을 지킨 가운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에 완패하며 리그 연승을 멈췄다.
손흥민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키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23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4골 3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말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라운드에서 멀티 골을 터뜨려 살아남 조짐을 보였으나 리그에선 지난달 초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19라운드 이후 5경기째 골 침묵이 이어졌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담낭염 수술 뒤 복귀한 토트넘은 전반 로드리고 벤탕쿠르의 선제골로 앞서 가다가 4골이나 얻어맞고 1-4로 역전패했다.
최근 리그에서 2연승, FA컵을 포함하면 공식전 3연승의 상승세가 끊긴 토트넘은 승점 39로 5위를 유지했다.
리그 2연승을 거둔 레스터시티는 13위(승점 24)가 됐다.
전반 14분 선제골까지는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았다.
이반 페리시치가 차출된 오른쪽 코너를 혼전 상황에서 레스터시티 수비수 빅토르 크리스티안

센이 걷어 내려 했으나 멀리 가지 못했고, 벤탕쿠르가 밀어 넣었다. 비디오 판독(VAR)으로 오프사이드 여부가 체크됐지만, 문제없이 득점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 레스터시티의 반격이 매서웠다.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티모티 카스타뉴의 헤더를 골대 앞에서 벤탕쿠르가 머리로 막아냈으나 흐른 공을 남팰리스 멘디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때린 것이 골대 오른쪽 구석에 꽂혀 균형을 맞췄다.
이어 레스터시티는 2분 만에 전세를 뒤집기까지 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태클로 넘어온 공을 켈레치 이헤어나초가 받아 페널티 지역 안을 파고들었고, 왼쪽으로 건넌 패스를 제임스 매디슨이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역전 골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 추가 시간엔 이헤어나초가 레스터시티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완전히 분위기를 바꾼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서도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던 토트넘은 공수에 걸려 활약을 펼치던 벤탕쿠르가 후반 15분 무릎을 다쳐 뛸 수 없게 되는 약재까지 만났다. 오히려 레스터시티가 후반 36분 반스의 켈로 완승을 자축했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닷컴은 경기를 마치고 손흥민에게 토트넘 선발 선수 중 4번째로 낮은 평점 6.0점을 줬다.
황희찬(27)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울버햄프턴은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12일 레스터시티전을 마치고 그라운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들 몸개그에 웃음 소리 가득 게임같은 훈련으로 효율성 높인다

힘든 캠프지만 ‘즐거운 훈련’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애리조나 투싼 키노 콤플렉스에 11일(현지시간) 웃음 소리가 가득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훈련 시간에 나온 웃음 소리였다.
오전 일찍 시작되는 캠프의 하루는 오후 웨이트, 야간 훈련 일정으로 진행된다. 매일 같은 곳에서 비슷한 훈련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는 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코칭 스태프는 매일 훈련 방식을 고민한다. ‘놀이 같은 훈련’도 캠프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다.
먼저 야수초 워밍업 시간에 선수들은 웃으면서 땀을 흘렸다.
러닝으로 가볍게 몸을 풀 야수들은 이내 편을 나눠 게임을 진행했다.
트레이닝 코치가 외치는 숫자에 맞춰 자리 이동하기, 가위바위보를 한 뒤 승패에 따라 이동해 트레이닝 코치와 터치하기, 한 줄로 공을 전달한 뒤 마지막에 바구니에 공 넣기 등이 이날 진행된 ‘게임 같은 훈련’이다.
몸개그를 하는 선수도 나오고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냥 게임은 아니다. 손발력과 팀워크 등이 필요한 나뭇의 훈련, 선수들의 승부욕도 자극하면서 체력 단련 효과까지 더해진다.
훈련의 백미는 마지막에 진행된 ‘바구니에 공 넣기’였다.
두 조로 나눠 선 선수들은 가랑이 사이로 공을 전달한 뒤,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설치된 콘을 돈 뒤 앞으로 가서 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바구니에 공을 넣어야 끝나는 게임.
김선빈조의 중반 흐름은 좋지 못했다. 공을 흘리기도 하는 등 공물레이에서는 최형우조에 뒤졌다. 하지만 최형우조 마지막 주자 김도영이 바구니에 공 넣기를 잇달아 시도하는 동안 김선빈조가 뒤집기에 성공했다.
‘팀워크’가 비결이었다. 릴레이를 끝낸 선수들이 단체로 바구니 주변으로 몰려가 빠지는 공을 바로 잡아, 빠르게 마지막 주자 한승택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만에 골이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면서 역전승이 완성됐다.
황대인은 “이게 팀워크다”고 외치면서 승리를 기뻐했다.
투수조에서는 글러브로 공 주고 받기를 하면서 팀워크와 집중력을 다졌다. 마운드 최고점 양현종은 온 몸으로 후배들의 훈련을 돕기도 했다.
홍승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양현종이 포수를 맡아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했다.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선수는 훈련을 끝내고 관람자가 되고, 볼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글러브 토스를 이어가는 방식.
선수들이 하나 둘씩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서 윤중현과 임기영만 남게됐고, 양현종은 점점 자세를 낮추면서 사람들을 웃겼다.
더 정확하게 공을 토스해야 훈련이 끝나게 되는 상황. 양현종은 윤중현 홀로 남아 아예 일자퍼기를 한 채 바닥에 엎드려 포구를 했다. 살신성인한 선배 덕분에 집중력을 발휘한 윤중현이 마지막으로 ‘합격’ 사인을 받으면서 훈련은 끝이 났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 훈련을 소화한 KIA는 12일 휴식일을 보내면서 재충전을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필드 돌아온 타이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참가
7개월 만의 실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미국)가 다음 주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000만 달러)을 통해 필드에 복귀한다.
우즈는 11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음 주 PGA 투어 대회에 참가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트위터 계정을 덧붙여 이 대회 출전을 알렸다.

우즈가 투어 대회에 나서는 건 지난해 7월 열린 디오피온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벤트 대회를 포함해서는 지난해 12월 PNC 챔피언십 이후 2개월 만에 필드에 모습을 드러낸다. 메이저 대회가 아닌 PGA 투어 대회엔 2020년 10월 조조 챔피언십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출전한다.
2021년 2월 큰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우즈는 이후 일부 대회에만 출전해 왔다.
그해 12월 가족이 출전하는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와 함께 나선 뒤 지난해 4월 마스터스, 5월 PGA 챔피언십, 7월 디오피온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 참가했다.

우즈는 마스터스에선 47위에 자리했고, PGA 챔피언십에선 첫날부터 다리 통증을 호소하다가 3라운드 후 기권했다. 디오피온에선 컷 탈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나갈 예정이었으나 오른쪽 발바닥 통증으로 계획을 철회했고, 이후 열린 이벤트 대회 ‘더매치’와 PNC 챔피언십에는 참여했으나 완전한 컨디션을 보이지 못했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즈는 “2023년에는 메이저 대회 외에 1, 2개 대회에 더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의 재단이 주최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올해 첫 대회가 됐다.
우즈가 올해 첫 대회 출전을 선언하면서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가운데 관건은 그의 다리 상태와 체력이 온종일 걸으며 경기하는 걸 버텨낼 정도로 좋아졌느냐다. /연합뉴스

신지애, 호주프로골프 빅토리아 오픈 우승...프로 통산 62승

신지애(35)가 호주 여자프로골프(WPGA) 투어 빅토리아오픈(총상금 42만 호주달러)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12일 호주 빅토리아주 바윈헤즈의 서틴스비치골프 링크스(파72·5660m)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5타의 성적을 낸 신지애는 공동 2위인 그레이스 김(호주)과 파버리사 요크투안(태국)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로써 신지애는 2021년 7월 일본여자프로골프

(JLPGA) 투어 다이토 겐타쿠 레이디스 이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 7만5600 호주달러(약 6600만원)를 받은 신지애는 프로 통산으로는 62승째를 거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1승(이하 다른 투어 중복 승수 제외), 레이디스유리퍼먼 투어(LET)에서 2승, JLPGA 투어에서 26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0승을 기록했고, 레이디스 아시안투어와 대만에서도 1승씩 추가했다. /연합뉴스